

목포서도 주행 중 화재...BMW 공포 확산

“3일전 안전검사까지 받았는데...” 운전자 불안감 가중 주차 자제 요청·차량 가격 하락에 차주들 피해 호소도

목포에서도 주행 중인 BMW 디젤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는 물론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차량화재가 건물이나 터널 등에서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난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3일 전 안전점검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BMW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모(54)씨가 운전하던 BMW 520d(2014년식)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불은 엔진룸 등 차체를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차 안에는 김씨와 동승자 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이 나자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다. 김씨는 “주행 중 기어가 빠지며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더니 엔진룸 안에서 불이 났다”고 경찰과 119에 진술했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전국 BMW 차량 화재 사고를 32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목포 사례가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건을 시작으로 2월 2건·3월 1건·4월 5건·5월 5건에서 7월달 들어 12건으로 급증했다. 이달에는 지난 4일까지 4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대 꼴로 BMW 차량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520d 차종은 19건으로 집계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생산된 디젤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42개 차종 10만6000여대의 리콜 계획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BMW는 리콜 조치

가 내려진 차량 전체에 대해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긴급 안전진단을 통해 정비가 급한 차량부터 먼저 부품을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안전진단은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 EGR 부품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1만5337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마쳤다. 하지만 이번 목포 화재 발생 차량이 불과 3일 전 안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점검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이 안전점검 방식과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목포 차량화재 이후 운전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목포 화재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던 서비스센터에 담당 직원을 급파해 실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당국과 함께 문제의 차량에 대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

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 ‘BMW 차량은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BMW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기계식 타워주차장에서는 BMW 제작 차량에 대해 디젤과 휘발유 차량 구분없이 주차 자제를 요청하면서 BMW운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BMW 차주들은 화재 위험과 함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화재가 주로 발생한 BMW 520d와 같은 등급이면서 휘발유 차량인 528i 차종을 소유한 A씨는 “화재가 난 디젤차량과 차종이 다른데도, 여기저기서 괜찮다는 질문을 수십번이나 들었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일 BMW디젤 차량들에 대한 운행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민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6년만에 불러보는 “아빠, 엄마”

폐암 말기 아버지 호소에 광주서부경찰 DNA 정보로 딸 찾아

36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70대 노부부는 딸을 끌어안은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딸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연신 눈물을 쏟아냈다.

경기 파주시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난 4일 만난 어머니 정모(76)씨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셋째 딸 나모(42)씨는 36년 전 헤어졌다.

3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 정씨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사진에 담긴 나씨의 모습은 현재 모습 그대로였다.

정씨는 딸과 헤어지던 그 해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야채 몇 단을 파는 보따리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 1982년 4월 28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셋째 딸(당시 6세)을 두고 장사를 위해 이른 시간에 시장으로 나섰지만, 집에 혼자 있던 딸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정씨는 셋째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의 행방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족의 생계는 물론 셋째 딸과 같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 딸까지 키워야 했던 정씨는 결국 셋째 딸을 가슴에 묻어둔 채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정씨가 36년만에 잃어버린 딸을 꼭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의 간절한 호소 때문이었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광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폐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이 죽기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정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양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하고, 실종 당시 인상착의를 근거로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등을 조회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수사와 병행해 어머니 정씨의 DNA를 채취하고 유전자 등록한 뒤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유사한 DNA가 있는지 확인·의뢰했다. 이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2차 DNA 채취 끝에 경기 파주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최모(여·40)씨와 ‘친자관계’ 성립되는 DNA를 최종결과를 통보받았다. 실종된 딸은 실제 나씨 성을 가진 42세 여성이었지만, 실종 후 최씨 성을 가진 40세 여성으로 살아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인권 옹호기관과 연계해 호적정리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나씨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경찰, 서대석 서구청장 불구속 입건 소환조사키로

광주서부경찰은 5일 ‘서대석 서구청장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조모(5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윤정현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광주시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광주시환경관리공단 사업 참여 대가로 1800여만원 등을 청진 혐의(변호사법 위반)

를 받고 있다. 서 청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조씨는 자신이 돈을 전달했다며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왔다. 서부경찰은 서 청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고속도로 포트홀에 차량 파손 법원 “도로공사 책임 50%”

고속도로의 포트홀(도로의 움푹 팬 곳)을 지나다 차량이 파손됐으면 도로관리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11시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는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다. 그 순간 차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운전석 쪽 앞·뒤 바퀴의 휠과 타이어가 손상됐다. A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138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책임자인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도로공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야간에 상당히 넓은 도로 구간에서 포트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달궈진 비닐하우스 식혀라” 폭염이 이어진 5일 나주시 봉황면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광역살포기로 물을 뿌리고 있다. /나주=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시험지 유출사건 검찰 송치...대가성 못 밝혀

광주 한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지금까지도 의문을 낳고 있는 행정실장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가성 여부,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파악하지 못했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학부모(학교운영위원장) A(여·51)씨와 광주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 B(57)씨 등 2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3 수험생인 A씨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하고 이를 실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A씨와 B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시험지 원본을 빼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학부모 A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집, 행정실장 B씨의 집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들과 주변의 통신내역, 계좌 등을 집중 확인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택시 훔쳐 목포서 평택까지 몰고 간 20대 ‘뒤늦은 후회’

○··친구들과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를 훔쳐 목포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300km를 운전한 20대 가 경찰서행.

○··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께 목포시 상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정차 중인 택시를 훔친 뒤

서해안고속도로를 거쳐 경기도 평택시까지 몰고 갔다는 것.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A씨는 지난 4일 스스로 평택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 경찰은 “자수 당시 택시를 세워 놔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범행 전 술집에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